



# CEO Movement

**유** 능한 CEO가 갖춰야 할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킬링, 현직 CEO들의 설문조사, 책자를 통해 다양한 조건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면, 기업이 가진 능력과 비전에 대한 믿음일 것이다. 지난달 KISA 황중연 원장은 '정보 보호 연구성과물 전시 및 발표회'를 통해 KISA가 가진 또 하나의 능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성공했다.

|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



■ KISA 정보보호 연구성과물 전시 및 발표회 : 460여명의 정보보호 관계자 참석

지난 3월 10일 KISA 황중연 원장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정보보호 연구성과물 전시 및 발표회'를 통해 약 460여명의 정보보호 관계자를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KISA가 정보보호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이 소개됐으며, '신규 융합서비스 보호기술',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기술',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술' 등 3개 분야의 10개 핵심 기술이 전시돼 상세한 소개와 시연이 이뤄졌다.



■ SK커뮤니케이션즈와 MOU체결 : 네이트온 메신저에 악성코드 자동탐지 기능 부여

지난 3월 11일 KISA 황중연 원장은 SK커뮤니케이션즈 주형철 대표와 그린 인터넷 조성을 위한 정보보호 문화정착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향후 네이트온 이용자는 네이트온의 백신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KISA의 악성코드 탐지 패치를 설치하면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감염 시 자동 치료받거나 KISA로부터 치료방법을 전달받게 된다. 한편 지난 3월 26일에는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와도 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협약을 통해 KISA가 개발한 악성코드 감염확인 기술을 엔씨소프트 게임사이트 방문자에게 서비스하게 된다.

■ '미래의 정보보호 전문가들에게 이 증서를' : 대학정보보호 지원 동아리 증서수여식

KISA 황중연 원장은 지난 2월 26일 KISA 5층 회의실에서 KISA 대학정보보호 지원동아리 증서를 35개 동아리 대표들에게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2009년 대학 정보보호 지원사업에 참여한 35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2009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워크샵이 진행됐다. 한편, KISA는 2009년 한 해 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학 동아리에게 맞춤형 교육, 해외 컨퍼런스 참가 지원, 산·학 협력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